

문 12.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 하시는 중에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는가?

답 12: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복 하는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 하셨다.

성경적 근거: 창세기 2:16-17; 로마서 5:12-14, 10:5; 누가복음 12:25-28; 갈라디아서 3:12

질문 1: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나?

질문 2: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무엇을 금 하셨나?

질문 3: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나?

질문 4: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질문 5: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은 무엇인가?

질문 6: 언약이란 무엇인가?

질문 7: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분별 할 수있도록 지으셨나?

질문 8: 하나님은 불순종을 무엇으로 다스리겠다고 하셨나?

질문 9: 사망이란 무엇인가?

설명: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의지적 선택의 권한과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권한) 선악과를 자유롭게 먹으면 앓되는 의지적 선택의 권한을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권한) 주셨다. 자유의지는 선택의 여지가 있을때에 성립이된다. 하나님은 죄가 있기전에 이런 선택의 여지를 허락하셨다. 선택의 여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임의대로”라는 표현이 가능한것이다.

진정한 자유는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만이 있다면 성립이 되지 않는다. 진정한 자유는 임의대로 할수없는 것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과 함께 존재할 때에만 가능하다. 그래서 선택과 자유의지는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자유”와 “자유의지”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란 사실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단어이다. 그 이유는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자유는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그 이유는 세상은 자유를 인간에게 적용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는 하나님의 속성 중의 하나로써 “하나님은 그의 뜻하는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뜻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유를 무한한 자유라고 한다면 사람이 누리는 자유는 유한한 (제한된) 자유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자유는 없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자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단,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런 자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유는 그의 선택에서만 무한한 것이 아니다. 그의 선택의 결과도 마음껏 선택할수있다. 그러나 사람은 첫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선택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 점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선택의 결과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사람이 죽을것, 즉, 결과를 이미 정해 놓으신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다.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벌을 받게되어있다. 사람을 죽이는 선택의 자유는 내게 있지만 그 선택이 가져다주는 결과는 내가 선택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제한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 사람의 자유가 제한되었다는 것은 창조의 원리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제한된 자유가 나쁜 것이 아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쉽게 말해 주는 또 다른 하나의 현실일 뿐이다. 하나님은 먹을수 있는 자유와 먹을수 없는 자유를 주셨다. 그러나 먹고 안먹고에 따라 아주 다른 결과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결국, 선악과를 안먹으면 살고 먹으면 죽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사람의 자유는 하나님의 자유에 비해 제한적이다. 이 사실을 놓고 힘들어 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인정하고 사람이 누구인가를 인정한다면 이 사실은 전혀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의 정체성을 망각한다면 사람의 제한적 자유는 사람을 무척 힘들게 한다.

사람은 마음으로는 한없이 허황된 꿈과 생각을 하지만 결코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이 순간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 같이 잘못된 생각을 할 때에는 자신의 한계가 너무 힘들게 다가 오기도 한다.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가 제한적인 자유라는 것을 증명하는 한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사실이다. 금지령을 내리셨다는 것은 사람에게 선택을 허락하셨음을 말해줄 뿐 아니라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것이다. 사람에게 주어진 선택권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그 선택권과 함께 주어진 것은 바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다.

자유의지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능력과 한계를 말한다.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자유의지이다.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가 제한적이라면 사람의 자유의지 역시 제한적인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를 누릴수있는 능력과 한계를 함께 주시고 허용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창조의 원리속에서 우리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진정한 자유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을 말한다.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는 것이다. 불순종도 인간의 자유의지적인 만큼 인간이 불순종하는 자유의지적인 결정에 아주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바쁜 도로를 건너야 되는 상황에서 나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 내가 조심스럽게 좌우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건널수도 있고 또 나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사용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전혀 조심하지 않으면서 도로를 건널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의 자유의지를 잘 못 사용하여 오는 차에 치어 평생 불구가 되어 살아갈수도 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불구됨이 자신의 자유의지의 트로피로 생각하고 자부심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

하나님께서서 아담에게 주신 자신의 형상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자유와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다. 그리고 선택의 여지를 남기셨다. 또한 선택의 결과를 분명히 말씀해주셨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을 남용하고 말았다. 결국 알고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유와 사람의 유한한 자유를 구별하지 못했던 것이다. 둘째, 아담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택의 결과에 대해 의심을 품게되었던 것이다. 이 두가지가 아담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했던것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는 이유를 따져보면 위의 두가지 이유 때문인 것을 쉽게 알수있다.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보자. 첫째, 무한한 자유와 유한한 자유를 구별을 못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사람의 정체를 혼돈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됨을 인정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결과에 의심을 할 때 죄를 짓게된다. 우리는 “설마 그런일이 있을까?” 또는 우리의 결정과 미리 주어진 결과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다. “왜 선한사람에게 나쁜일들이 일어나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역할은 너무 중요했다.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과 피조물되는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순종은 너무나도 당연할 뿐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 피조물이 조물주의 뜻을 어긴다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마구 때리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을 동양철학에서는 천륜을 어기는 것이라 표현한다.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원죄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선악과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안에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첫째, 선악과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셨다는 말이다. 다시말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의 대상이 되게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일방적인 약속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그의 귀한 약속을 맡기고 책임지게 하셨다. 그러나 사람은 그 약속의 청지기가 되지 못하고 죄를 짓게된다.

둘째, 선악과의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측정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순종이 없이는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선악과를 통해 그들이 피조물임을 분명히 알려주셨던 것이다. 결국 인간이 죄를 짓게 된 것은 그가 피조물임을 뱀에게 피여 잠시 망각했었기 때문이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게 되었던 것이다.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의 섭리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알고 누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 밖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셨고 또 자유의지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를 심으시고 그 나무에 열린 과실을 먹지 못하도록 하신것이다.

언약이란 무엇인가?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신적 권한으로 정하신 것으로 불변할 수 없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으로 그 관계의 형성의 조건을 제시하신 것이다. 성경에는 여러 언약이 나온다. 다른 기회에 그 언약에 대해 다루기로 한다.

생명의 언약(계약)이란 무엇인가? 생명의 언약을 다른 말로 “행위의 언약”이라고도 한다. 이 언약이 바로 창세기 2 장 16-17 절에 나오는 내용으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맺어진 계약으로 하나님의 복 (또는 생명)을 누리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 바로 순종, 즉 “행위”라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의 언약 또는 행위의 언약은 반드시 순종을 요구하고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이란 잘못된 선택으로 생명보다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언약이란 정의를 통해서 이미 알수있지만 하나님께서 내세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그 언약은 사람을 파멸로 몰아갈 수 밖에 없었다. 죽음을 면하는 조건이 바로 순종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행위의 언약만 주셨더라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는데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을 주셨다. 이 은혜의 언약은 사람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오로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

언약의 조건이 만족시켜지는 것이다. 이 말은 은혜의 언약이 행위를 전혀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아담으로 부터 불순종한 사람의 행위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요구되는 행위가 있다. 그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순종의 행위로 은혜의 언약이 영원불변토록 체결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가 우리안에 계시면, 우리는 은혜 언약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은혜의 언약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의 언약을 주셨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즐겼다. 이것이 생명이다. 그러나 아담이 선택한 길은 죽음의 길이었다. 그래서 죽음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놀랍게도 은혜의 언약을 통해 크리스찬들은 육신의 죽음을 통해 완벽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육신의 죽음은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들에게 정반대의 의미와 결과를 설명한다. 비크리스찬들에게 육신의 죽음은 그들의 영적죽음을 뼈저리게 느끼게하는 순간이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에게 육신의 죽음은 그들이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육으로 완벽하게 누리지 못하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누리게되는 짜릿한 순간을 말한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완벽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 때에 우리가 누릴 선택이야 말로 진정한 자유의지가 무엇인지를 알게될 것이다.

질문 10: 사무엘 선지자는 범죄한 사울왕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었는가?
(삼상 15:22)

질문 11: 예수님의 순종은 무슨 중요한 일을 해냈는가? (롬 5:19)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예수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이다. (갈 5:1-2)